

유암초 특기적성 교육 프로그램 ⑧ ... 배드민턴 교실

# 학생들의 기초체력 향상 위해 교육

## 우수학생 선수로 성장하도록 지도



기초체력향상을 위해 유암초등학교 학생들이 배드민턴 특기적성교육을 받고 있다. 우수학생은 선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전신운동의 증폭으로 몸의 균형 발달과 신경계, 호흡순환계 및 내장기관을 발달시켜 어린이들의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게 하고 치고 달리는 동작으로 이루어져 스트레칭을 해소하고 밝은 정서를 유지시켜 정신적 건강에 도움을 주고 학교나 가족 등의 집단속에서 언제 어디서나 쉽게 할 수 있어 인간관계 형성을 원활하게 하고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함양에 도움을 주는 운동입니다.”

유암초등학교 특기적성교육 프로그램 생활체육 배드민턴 교실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 심우인 담당교사의 설명이다.

심 교사는 80년대 군 부대에서 배드민턴을 시작해 경기도 대표팀으로 7년 동안 선수생활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기초체력 향상을 위해 배드민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심 교사는 배드민턴은 운동속달기간이 짧아 성취감을 빨리 느껴 학생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는 좋은 운동이라고 한다.

학생들에게 러닝, 백스텝, 헤어핀 등 기술을 단계별로 교육하여 학생들이 실질적인 기술을 습득하여 대회에서도 우수한 경기를 펼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공격과 수비방법, 경기규칙, 각 부분별 특성에 따라 기술 교육, 단식, 복식, 혼합 복식의 규칙과 특성 교육, 서브와 서브 리시브의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여 현재 8명의 학생이 배드민턴을 익히고 있는데 교육효과

로는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여 매사에 자신감을 갖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경기할 때의 예절을 다함으로서 신사적인 인간성을 함양하여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형성해 나갈 수 있다.

심우인 담당교사는 “특기적성 수업을 통해 소질 있는 학생들을 발굴하여 포천초등학교, 포천여자중학교, 포천고등학교로 이어지는 배드민턴 선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포천에서 국가대표 선수도 배출된 만큼 희망을 갖고 선수발굴에 나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송종길 유암초등학교 교장은 “우수한 학생이 발견되면 선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지만 현재 교육목표는 기초체력향상에 있다”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 “삼정초가 이렇게 변하고 있어요”

### 삼정초, 환경개선사업보고회

삼정초등학교(교장 한태현)는 지난 21일 교내 급식실 및 골프 연습장에서 환경개선사업보고회를 개최했다.

김의숙 교장은 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7월 25m 거리에 5타석을 갖춘 골프 연습장 설치 ▶급식소와 골프연습장 사이에 체력단련장 설치 ▶급식소 건물에 벽화그리기 ▶학교뒷산을 이용한 산책로 조성 ▶연못 주변 정비 ▶주차장 뒤 하수구에 U관 설치로 안전유지 ▶야생화 및 허브단지를 조성했다고 밝혔다.

한태현 교장은 인사말에서

“떠나지 않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교사와 학부모, 학생들이 노력한 결과 지난해 3학년 40명에서 올해는 4학년 57명으로 학생수가 증가했다”며 “내년에는 일반학급이 5개 학급으로 늘어나는 만큼 부족한 교실 확충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변진수 교육장은 축사에서 “삼정초등학교는 차별화된 교육으로 매년 학생수가 증가하고 있어 고무적”이라며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학교의 특성을 살려 발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혁배 기자 94spice@hanmail.net



삼정초등학교가 지난 21일 교내 급식실 및 골프 연습장에서 환경개선사업보고회를 개최한 가운데 이변 사업의 성과로 지난 7월 완공된 골프연습장에서 기념테이프를 컷팅하고 있다.

## 태봉초·송우중학교 2006년 3월 개교



송우초등학교 전경.

소흘읍에 태봉초등학교와 송우중학교가 오는 2006년 3월1일에 개교한다. 다만 태봉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은 오는 2006년 9월1일에 개원할 예정이다.

태봉초등학교는 송우3리, 송우6리1반, 송우택지개발지구 1단지13구역과 2단지, 송우3단지 301동부터 310동까지를 통학구역으로 한다. 따라서 태봉초등학교 각 학년 1학급씩 6학급으로 개교할 계획이다.

송우중학교는 송우초, 추산초, 태봉초, 신봉초, 이곡초, 축석초 등 송우중학군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2006년3월1일 3-4학급 규모로 개교할 예정이다.

한편, 태봉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은 아파트 미입주 등으로 오는 2006년9월1일에 개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 운동상의 미국어파라하기

13. 오늘 저녁 7시로 자리를 예약하고 싶은데요. I'd like to make a table reservation at 7 this evening. 아이드라익투메익커테이블리저베이션 셋테브디스이브닝.

\*몇 분이신데요? How many persons would there be in? 하우메니퍼슨우테어비인?

14. 슈퍼에 좀 가야 하는데. I have to go Supermarket. 아이헤브투고우슈퍼마켓.

\*채소 사는거 잊지 말아요. Make sure to get some fresh vegetable. 메이셜브투겟프레쉬베지테블.



문의 : 윤종성 (017-723-4977)cdlyoon@nate.com

## 교사 탐구 35 유암초등학교 교사 김주영

“일찍 선천을 여의고 초등학교 시절 선생님이로부터 편모가정이라는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았을 때 나중에 교사가 되어 같은 처지에 있는 학생들에게 좀더 잘해 주면 더욱 열심히 노력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교사가 되기로 결심”했다는 추산초등학교 김주영(30·사진)교사를 만났다.



김 교사는 김포 서암초등학교, 인천 용현중학교, 인천고등학교, 경인교육대학교 국어과를 졸업하고 2000년8월 수원 읍전초등학교에 발령되어 3년간 근무한 후 2003년 추산초등학교로 부임했다. 김 교사가 추산초등학교로 부임한 것은 처가대 연고 때문이다. 앞으로 계속 포천에 근무하겠다는 김 교사는 경인교육대학교 대학원 국어과를 졸업하기도 했다.

김 교사는 “어이없이 재미있는 수업”에 큰 보람을 느끼고 있다. 이 수업은 교사의 시각에서는 웃을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시각에서는 크게 웃을 일이 있다는 사실이다.

김 교사는 경인교육대학교 국어과 교수들에게 영향을 많이 받았다. 깨끗한 교수님들의 매너를 통

## ‘어이없이 재미있는 수업’ 큰 보람 “스스로 당당할 수 있는 교육여건 조성돼야”

해 학교에 그대로 적용하여 깨끗한 교사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으며 동료집단의 동아리 모임의 활성화를 통해 끊임없이 지식을 공급받고 있다.

특히 ‘대화로 엮어 가는 국어교육연구회’는 매주 1회 모임을 실시하는데 경기지역 교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토론하고 대화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정보를 교환한다. 이것은 곧바로 학생들에게 전달되어 보다 효과적인 수업진행이 가능하다.

김 교사는 추산초등학교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학교숲 담당교사다. 추산초등학교의 환경교육은 학교숲 가꾸기, 자연학습장, 그린스쿨, 연구보고 등으로 구분되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역시 학교숲 가꾸기다. 이 교육을 위해 김 교사는 체육복 차림으로 학교에서 생활한다. 언제 어디서든지 작업 준비 완료다. 나무를 심고 화초를 가꾸고 아이들의 실제적인 교육을 위해 여러각도로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추산초등학교 환경교육의 핵심은 사회의 패러다임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사회인을 육성하는데 있다.

김 교사는 또 청소년단체인 추산킥스카우트 대장이며 포천지구 스카우트 훈육위원으로서 학생들에게 호연지기는 물론 규율을 통한 질서의 아름다움을 교육해 나가고 있다. 김 교사는 수업은 유익하고 재밌고 재미 있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학생들 앞에 선다. 그러나 늘 어렵다는 생각을 한다.

환경교육의 목표는 자연과 인간의 공생에 있다. 환경과파에 대해 미안하고 안쓰러운 생각으로부터 출발하는 환경교육은 함께 살아가는데 서로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재래종과 개량종의 차이점을 실험을 통해 확인함으로써 재래종에는 유전인자가 포함되어 있어 다양한 개량종으로의 변이가 가능하지만 개량종은 그런 변화를 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또 겨울나기에 것과 죽는 것이 재래종과 개량종의 차이점일 수도 있다.

또 자연에 대한 막연한 관찰을 위해 목발을 만들었다. 이곳에는 아무것도 심지 않았는데도 무언가 자라기 시작한다. 그리고 시기가 지나면 새로운 식물들

이 또 태어나고 자란다. 왜 그런지를 찾아서 연구하는 것이 바로 환경교육이다. 또 땅콩이 땅속에 들어가서 열매를 맺는다. 왜 그런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정글식물의 경우도 나무를 타고 위로 올라가는 것과 바닥으로 기어가는 것 등으로 나뉠 수 있다.

김 교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육청 차원의 강제연수(?)의 예산을 동아리 활성화를 위해 투입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제시한다. 자율적인 교사들의 동아리활동은 그 교육효과가 크다. 자발적으로 모였다는 점과 관심영역이라는 점에서 교사들이 능동적으로 연구할 수 있어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이같은 효과는 곧바로 학생들에게 연결되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예산지원이 절실하다.

교사로서의 비전에 대해 김 교사는 당당하게 교단에 서고 싶다고 한다. 스스로 당당할 수 있는 교육여건이 조성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늘 파리로 숨이라는 생각과 부당한 대우에 미련을 버리고 떠나야 하는 생각을 품은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환경이라면 분명 문제가 있는 환경이라고 생각한다.

김 교사에게는 나름대로 학급경영 마인드가 있다. 첫째 정연한 규칙 속의 자유다. 학생 스스로가 규칙을 토의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거쳐 정하고 스스로 지켜나가기도록 교육한다. 둘째, 인성과 창의성을 고루 갖출 수 있도록 인내를 갖고 지도한다. 셋째, 국어과 교육과 스카우트 교육방법을 활용한 교육에 나선다. 언어사용에 있어 언어소화 교육의 일환으로 육교교육을 실시하고 자기표현에 있어 연극 교육 중심 수업, 토의·토론수업 중심으로 수업을 전개하고 스카우트 교육방법인 다양한 자기계발과 전체와 개인이 조화된 인간을 교육한다.

아이들에게 환경교육을 위해 준비하는 과정도 교육이다. 김 교사는 파리로 체육복 차림으로 나무를 심기 위해 고품격을 쓴다. 팜플릿은 과정 자체 교육이다. 다양한 프로그램도 준비한다. 이제 1년차다. 아직 성과를 기대하기는 이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이들에게 큰 교육의 장이 될 것이다. 그 날을 위해 오늘도 김 교사는 열심히 연구에 몰두한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 20년 동안 한결같은 맛을 제공하는 사철탕의 명소

## 원조 방축리 사철탕

### 아무도 모방할 수 없는 방축리 사철탕의 맛!





정겨운 분위기  
넓은 주차공간

사철탕의 원조 방축리 사철탕(대표 : 리달중)

포천시 가산면 방축1리 ☎ 예약전화 031)543-4822

찾아오시는  
← 의정부 하송우 포천 →  
거평역순 ● 사철탕 우회전 ● 사철탕 직회전 ● 내촌 →  
방축리 사철탕 ● 포천철강